인문계열 논술고사 (서울 캠퍼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들을 활용하여 '기술 발달의 양면성(부정적, 긍정적 측면)'을 각 제시문 별로 논하시오. (800±100자) [문과대학, 사범대학 및 예술학과 지원자에게는 타 문제의 2배의 배점]

제시문 (가)

감옥 중앙의 감시탑은 둘레의 빈 공간으로 인해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고, 이곳에 있는 감독관은 수감자를 감시하지만 조명, 발, 덧문 등의 장치를 이용해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다. 또한 금속관을 설치해 감독관은 직접 수감자에게 가지 않고도 명령할 수 있다. 진행되는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감옥은 중앙의 감시탑에서 각 수용실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을 분리할 수 있는 건축 장치이다. 감시탑에서는 모든 것이 보이지만 각 수용실에서는 감시탑의 상황을 알 수 없다. 즉 감시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누가 감시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감시되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수감자는 항상 자신이 감시받는다고 느끼고 불안해한다.

이러한 감시 원리는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정교해지고 일상화되어 삶을 지배한다. 현대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는 규율과 통제의 도구로 작동할 때 벤담의 파놉티콘에서의 시선을 대신한다.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보를 국가나 직장의 상사가 열람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제시문 (나)

빛 아래, 수평선이 아득한 바다, 그는 자신의 앞날을 수평선이 아득한 바다같이 느꼈다.

"네, 그래요. 전쟁이 끝나고 그녀와 내가 살아남았다면 그 사람과 내 아들을 끌고 나는 북국으로 갈 겁니다. 빙하를 건너서요." 믿을 수 없는 꿈을 꾸듯 말하고서 그는 소리 내어 웃었다. 웃다가 웃음을 거두는 순간 연락선 기관소리가 굉음과도 같이 울려왔다. 쇠붙이가 마찰하고 마모되는 것 같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굉음, 심장이 파열될 것만 같았다. 그것은 또 자신의 심장이 박동하는 소리이기도 했다. 파도를 가르며 밤배는 조선해협을 지나가고 있었다.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 공고마루(金剛丸), 끝도 없이 조선인들을 노동자로 실어 들였던 거대한 배, 끝도 없이 실어낸 식민지 이주자(移住者), 만주 개척민과 병사들, 군부와 결탁하여 착취가 목적인 각종 사업체, 그리고 인원, 그는 자신도 그 사업체에 빌붙어서 사는 한 마리 바퀴벌레인 것을 느낀다. 자신과 자만에 가득 찬 관부연락선 공고마루, 육지와 육지를 이어주는 거대한 기계, 바다를 건너는 동안 그는 절대적인 군주다. 현대 문명의 산물이며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불 밝히며 그 위

용을 자랑하는 배, 그러나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기계의 박동, 기관소리만 하늘과 바다를 뒤덮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것은 공포였다. 이 기계의 무수한 쌍생아들, 탱크며 대포, 비행기며 기차, 기선, 자동차, 군함, 그런 것들에 제압되고 순종하며 또 비명을 지르는 인간들은 오로지 시간만을 재고 수치만 살피면 되는 또 하나의 기계인가.

제시문 (다)

가을 햇볕에 공기에
익는 벼에
눈부신 것 천지인데,
그런데,
아, 들판이 적막하다 —
메뚜기가 없다!

오 이 불길한 고요 —
생명의 황금 고리가 끊어졌느니……

【출제 의도】

과거에는 기술 문명의 부작용마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기술 문명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기술 문명의 발전이란 언제나 동시에 하나의 퇴보이기도 하다. 세 제시문에는 기술 발달에서 비롯된 감시와 통제의 정교화와 일상화, 대량 파괴와 대량 살육을 가능하게 하는 전쟁 무기 개발, 생태계 파괴 등 기술 발달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각각 담겨 있다. 문제 1은 세 제시문에서 기술 발달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발달의 긍정적 측면을 추론하여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

【예시 답안】

현대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기술의 발달은 삶의 중요하고도 불가피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효용성과 편리함이라는 장점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이로 인한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제시문 (가), (나), (다)는 정보기술, 기계문명,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직간접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 기술 발달의 긍정적 측면 또한 시사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현대사회의 감시체계를 파놉티콘의 구조를 지닌 감옥의 모습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감시주체의 익명성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 감시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가능케 한 반면 개인의 사적 영역이 침해받고 지나친 통제가 일반화될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거대한 기계', '절대적 군주'로 드러난 문명의 이기들이 현대문명의 발전을 이끌어낸 모습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면서도 '공포', '기계화된 인간', '제압' 등의 단어를 통하여 기계문명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었다. 제시문 (다)는 '황금 고리'가 끊어진 '적막한 들판'에 대한 통탄을 표현한다. 효과적으로 자

연을 개발하여 생활의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발달된 기술이 생명체의 유기적 조화를 파괴하는 '불길한 고요'를 가져왔음을 지적한다.

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이 이면에 인간을 기술문명에 종속시키고, 소외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제는 기술 발달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호에서 벗어나 그것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기술 발달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 자연, 기술 간의 조화로운 공생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채점 기준】

■ 기본 평가 기준

※ 문제 1 (문과대학, 사범대학 및 예술학과 지원자에게는 타 문제의 2배의 배점)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고 있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 되어야 한다.
2)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개인적인 감상이나 직접적 관련 없는 도식화된 예를 활용하는 경우는 감점한다.
3) 제시문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한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할 수는 있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 (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문제 2

제시문 (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와 (바) 두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800±100자)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타 문제의 2배의 배점]

제시문 (라)

왜 우리는 경제적 선택을 해야 할까? 그것은 희소성 때문이다. 공기나 햇빛처럼 인간의 욕구보다 많이 존재하여 무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자유재)만 존재한다면 선택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공급이 제한되어 돈이나 시간, 자원, 노력 등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재화(경제재)가 있는 한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선택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대안들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어떤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다. 얻는 것은 상황과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용을 지불하면서 얻으려는 그 무엇을 통틀어 편익(benefit)이라고 한다. 이때 지불하는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이 있다면 우리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경제적 선택의 과정에서 이런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새 고속도로를 건설하려 할 때도 이것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모든 경제적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것은 없다(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라는 말은 이 원리를 잘 나타낸다. 여기서 공짜 점심이라는 말은 미국 서부개척시대 술집에서 술을 한 잔 이상 사 마시는 단골손님들에게 점심을 공짜로 제공하던 데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점심메뉴가 매우 짜서

공짜 점심을 먹은 손님들은 갈증 때문에 더 많은 맥주를 마시게 되었고, 손님들은 자신이 지불하는 술값에 점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곧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웃들이 자발적 모금을 통해 골목길 가로등을 설치할 때 모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가로등 불빛을 공짜로 즐기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를 제외한 이웃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셈이다. 또한 사회 전체로 확대하면, 방위비와 사회 보장비 사이에도 선택에 따른 대가가 있다. 우리 국토를 외부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방위비의 증액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사회 보장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다른 것들은 포기한 것이 된다. 여기서 포기한 여러 대안 가운데 최선의 가치를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 한다.

어떤 한 사람의 선택에 의한 행동이 남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긍정적 외부효과(external effect)가 발생했다고 한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는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구태여 많이 만들려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방의 경우 납세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부담하기를 꺼려, 다른 사람들이 대신 부담해 주기를 바라면서 서로 미루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방, 치안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다수에게 간접적 편익을 주는 경우 더 많은 편익이 발생하도록 외부효과를 늘리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여 자원의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그 주요 정책수단에는 시장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 조세를 부과하는 것,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 있다.

제시문 (마)

오늘날 구글은 검색서비스,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워드프로세서,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에 이르는 100여 가지의 상품 대부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들이 제공하는 공짜는 아무런 속임수도 숨겨져 있지 않은, 진정한 공짜이다. 현대의 모든 디지털 기업이 해야 하는 방식, 즉 다수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소수에게서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구글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구글은 소수의 주력 상품들을 통한 광고로 거액의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구글 최고경영자인 에릭 슈미트는 이러한 전략이 가능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구글 뉴스에 관한 초기 연구에 따르면, 구글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뉴스를 읽고 무엇인가 검색할 경우 검색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이 두 배 증가한다. 엄청난 효과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구글 뉴스는 트래픽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미끼상품인 것이다. 물론 구글 뉴스는 세계적인 서비스이다. 그렇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상품은 '구글 뉴스'가 아니라 '구글'이다. 모든 것이 구글과의 계약이고, 구글과의 계약에 따라 구글이 훗날 현금화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당신이 이용한다면 구글은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구글맵스를 클릭할 때마다 소비자의 행동에 관한 또 하나의 정보가 수집되고, 지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모든 이메일이 인맥을 파악하는 데 또 하나의 단서 역할을 한다. 구

글은 신상품을 개발하는 데, 혹은 광고를 더 효과적으로 판매하는 데 그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수록 구글의 주력 비즈니스는 더 큰 이익을 낸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할 수 있다면 구글은 궁극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다.

제시문 (바)

누구나 한 번쯤 학교에서 일렬로 줄을 서서 가슴 졸이며 예방주사를 맞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부모 세대에서는 '불 주사'로 기억되기도 할 것이다. 겨울에는 독감 예방주사, 여름에는 일본 뇌염주사, 그 밖에도 결핵, 홍역, 간염 등 수많은 전염병에 대해 우리는 예방접종으로 미리 대비해 왔다. 그런데 '누구나', 그리고 '꼭 맞을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접종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을까?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대로 둘 경우 예방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과소소비) 때문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접종 시장에서 결정되는 예방접종 가격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가격이어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그 결과 예방접종의 수요가 줄어든다.

둘째,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늘어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전염병의 발생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간접적 혜택을 보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예방접종 인구가 늘어날수록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면서까지 예방접종을 받으려 하는 동기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예방접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방접종이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예방접종 보조금 지원은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예방접종 과소소비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출제 의도】

경제적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선택의 대상이 되는 대안들의 편익과 비용을 구분하고 기회비용의 개념을 충실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각 제시문의 출제의도는 다음과 같다. (요점 요약표 참조)

제시문 (라)

경제적 주체는(개인, 기업 또는 정부)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대안들을 분석하고 경제적 선택을 한다. 경제적 선택에는 개인적 차원이든 사회적 차원이든 대가(기회비용)가 따르기 때문에 공짜 점심이란 것은 없다는 원리를 파악하도록 제공한 제시문이다.

제시문 (마)

개인이 구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서비스가 무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들

은 구글에게 이용자 개인의 검색행동 패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글의 수익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선택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제시문은 무료처럼 보이는 서비스의 기회비용을 파악하고 있는 지 묻고자 하였다.

제시문 (바)

예방접종의 긍정적 외부효과라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국민 개인들은 접종비용이 높으면 예방접종 선택을 주저하게 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접종율을 높일 수 있지만 다른 분야로의 정부지출(예를 들어 방위비, 다른 사회 복지비 등)이 감소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제시문은 예방접종 보조금 지원의 기회비용을 파악하고 있는 지 묻고자 하였다.

【예시 답안】

제시문 (라)는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비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선택에 있어 긍정적 외부효과(편익)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제시문 (마)와 (바)에서는 각각 개인의 선택이 개인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제시문 (마)와 (바)에서는 각각 검색서비스, 예방접종서비스가 무료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 타분야 정부지출 감소와 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대가가 지불되고 있다.

제시문 (마)의 소비자는 구글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부지불식 간에 자신의 행동에 관한 개인정보를 대가로 제공하는데 따르는 기회비용을 가지게 된다. 제시문 (바)의 국민은 무료접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에 타 분야에서 정부지출의 삭감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가지게 된다. 제시문 (마)의 구글은 이윤이라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검색서비스 무료제공이라는 선택을 한다. 제시문 (바)의 정부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타 부문의 지출을 줄이고 예방접종을 보조하는 선택을 한다.

【채점 기준】

■ 기본 평가 기준

※ 문제 2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타 문제의 2배의 배점)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고 있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 되어야 한다.
2)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개인적인 감상이나 직접적 관련 없는 도식화된 예를 활용하는 경우는 감점한다.
3) 제시문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한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할 수는 있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 (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